

# 호남지역 산단 47% 노후화 심각

### 광주 7곳·전남 45곳 등 96곳...노후율 5개 권역 중 최고 사고 1건당 인명피해 발생률도 수도권 13배 높게 나타나 가동률 대별외국인산단 48.9%·빛그린산단 52.9% 불과

호남지역 산업단지들의 노후화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20년 이상 된 노후 산단이 전국 5개 권역 중 호남권이 가장 많이 분포하고 있는 데다, 노후 산단에서의 사고로 발생한 사상자도 가장 많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지역 산업 생태계의 중추적인 역할을 해야 할 산업단지가 노후화 돼 타지역에 비해 경쟁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공장 현대화와 기반시설 확충 등 지원 확대가 절실한 상황이다. 여기에 광주 빛그린산단의 경우 분양을 받은 뒤 아예 공장 가동을 하지 않은 기업이 80%에 육박해 대책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13일 국회 산업자원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송갑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한국산업단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산업단지 노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호남권 전체 205개 단지 중 96개(47%) 산단이 노후한 것으로 조사됐다. 5개 권역 중 호남권에 노후 산단이 가장 많았다.

그 중에서도 광주지역은 전체 산단 12개 중 노후 산단이 7개에 달해 노후율이 58.33%에 달했다.

이는 서울(3개 중 2개) 66.67%에 이어 전국 17개 시도 중 가장 높은 것이다. 전남지역은 105개 중 45개(43%), 전북은 88개 산단 중 44개(50%)가 노후 산단으로 분류됐다.

이처럼 노후화된 산단이 많아지면서 노후 산단에서 발생한 인명피해 역시 호남권이 가장 많았다.

2015년부터 올 6월까지 호남권 산단에

서 발생한 166건의 사고에서 239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특히 전남에서는 45건의 사고가 발생해 217명(부상 196명·사망 21명)의 사상자가 발생했고, 광주에서도 12건의 사고로 9명(부상 6명·사망 3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전북도 109건의 사고로 13명의 사상자가 나왔다.

사고 건수가 가장 많았던 수도권 산단에서는 전체 사고 411건 가운데 인명피해는 47명으로 사고 1건당 인명피해 0.11명이었던 것에 비해, 호남권에서는 사고 1건당 인명피해가 1.44명이었다. 수도권에 비해 사고당 인명피해 발생률이 무려 13배 높았다는 것이다.

송갑석 의원은 "지역 산단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공장 현대화와 업종 고도화 및 기반시설 확충 등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며 "산단 재생·혁신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경험을 갖춘 노후 산단이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발전의 기폭제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지역 국가산단의 공장가동률 저하 문제도 생산성 하락을 주도하는 요인

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날 국회 산자위 소속 최승재 의원(국민의힘)이 한국산업단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를 보면 지난 6월 기준 전국적으로 완전 미가동 공장은 총 4530개 사에 달했다.

특히 국가산단인 광주 빛그린산단은 분양기업 14개사 중 78.6%에 달하는 11개사가 미가동 상태로, 13개사 중 11개사(84.6%)가 미가동 상태인 포항 블루밸리 산단에 이어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이밖에 영암 대별외국인산단의 가동률은 48.9%에 그쳐 전국 35개 산업단지 중 3번째로 낮았고, 빛그린산단도 52.9%로 전국 5번째로 낮았다.

최승재 의원은 "산단 분양에만 신경을 쓰고 정작 관리에는 소홀하면 생산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산업단지공단이 각 산단에 입주한 기업들을 철저히 관리하고 건설·유망한 기업을 선별해 입주시키면 가동·고용률과 생산·수출 등이 개선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광주·전남 조합장들과 쌀 수매 논의 중. 농업 전남지역본부(본부장 김석기)와 광주전남RPC 협의회(협의회장 양용호·금성농협 조합장)는 13일 무안군 삼함읍 지역본부에서 '2020년 쌀 수확기 업무협의회'를 열고 농가 희망물량 전량 수매 등을 논의했다. <농협 전남본부 제공>

## 광주·전남, 9월 주식거래량 늘고 대금은 줄어... 코로나 19 업종 집중

### 거래량 18만 2456만주 전달보다 11.58% 증가

지난 달 광주·전남지역 투자자들은 고가 대형주보다 코로나19 관련 바이오 업종에 주목하면서 전달보다 주식 거래량은 늘었지만 거래대금은 줄었다.

13일 한국거래소 광주사무소가 발표한 '9월 광주·전남 주식거래 동향'에 따르면 지난 달 지역 주식 거래량은 18만2456만 주로, 전달(16만3523만주)보다 11.58%

증가했다. 거래대금은 17조1907억원으로, 지난 8월(18조3259억원)보다 6.19% 감소했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지역 주식거래 동향을 보면 고가 대형주보다는 재료보유 개별종목, 코로나19 관련 바이오 업종 등에 관심이 집중되면서 거래량은 증가했지만 거래대금은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지난 달 광주·전남 거래량 비중은 전체 대비 2.60%로, 전달보다 0.12%포인트 감소했다.

9월 지역 상장기업의 전체 시가총액은 20조1577억원으로, 전달(20조1343억원)보다 234억원(0.12%) 증가했다.

코스피 시총은 777억원(-0.44%) 감소했지만 코스닥 부문에서는 1011억(4.09%) 증가했다.

대우플러스 시총이 258억원 증가하며

38.40%의 증가율을 나타냈고, 한국전력(-642억), 세화아이엠씨(-199억)는 감소했다.

코스닥의 경우 신규 상장종목인 '박셀바이오'는 공모가(3만원) 대비 2900원(-9.67%)하며 지난 달 말 현재 시총은 2039억원을 기록했다. 대신정보통신(156억), 서암기계공업(112억원) 등은 증가세를 보였고 오이솔루션은 988억원(-14.18%) 감소했다.

/백희준 기자 bhj@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코스피 2403.15 (-0.58)    ↓ 금리(국고채 3년) 0.923 (-0.002)

↓ 코스닥 871.92 (-1.58)    ↑ 환율(USD) 1147.10 (+0.30)

## 현대차, 싱가포르에 글로벌 혁신센터 구축



13일 가상 형식으로 열린 '현대차 싱가포르 글로벌 혁신센터' 기공식. <현대차 제공>

### 국가 간 화상 연결로 진행 디지털 전환 가속화 등 주력

현대차그룹은 13일 현대·기아차 남양연구소와 싱가포르 서부 주류 지역의 주류 타운홀에서 싱가포르 글로벌 혁신센터(HMGICS) 기공식을 열었다. 기공식은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양국 행사장을 화상으로 연결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날 기공식에는 싱가포르에서는 리센롱 싱가포르 총리와 안영집 싱가포르 한국대사, 배 스완 진 경제개발부(EDB) 장관 등이 참석했고, 한국에서는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에릭 테오 주한 싱가포르대사, 정의선 현대차그룹 수석부회장 등이 자리했다. 정부 참여 공식 이벤트가 가상 방식으로 실시간 열린 것은 세계 최초라고 현대차 측은 설명했다.

HMGICS는 자동차 주문부터 생산, 시승, 인도, 서비스까지 고객의 자동차 생애주기 가치사슬(밸류체인) 전반을

연구하고 실증하는 개방형 혁신 기지다. 2022년 말 완공을 목표로 싱가포르 주류 혁신단지에 부지 4만4000㎡, 연면적 9만㎡, 지상 7층 규모로 설립될 예정이다.

건물 옥상에는 고속 주행이 가능한 총 길이 620m의 고객 시승용 '스카이 트랙', 도심 항공 모빌리티(UAM) 이착륙장, 친환경 에너지 생산을 위한 태양광 패널 등이 설치된다. 내부는 고객 체험 시설과 연구개발(R&D) 및 업무 공간, 소규모 제조 설비 등으로 구성된다.

현대차그룹은 HMGICS를 통해 인간 중심의 디지털 전환 가속화, 고객 중심의 스마트 모빌리티 환경 체계화, 미래 세대를 위한 친환경 비전 달성 등 3가지 전략에 주력할 방침이다.

정의선 수석부회장은 "HMGICS의 비전인 '모빌리티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인간 중심의 밸류체인 혁신'을 바탕으로 고객 삶의 질을 높여 나갈 것"이라며 "이를 통해 구현될 혁신이 미래를 변화시키고 인류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기용 기자 pboxer@

## 비대면 광주시민 인공지능 아카데미 교육

###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17일부터 11월 8일까지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이 비대면 '인공지능 광주시민 아카데미' 교육을 오는 17일부터 11월8일까지 진행한다. 교육은 운영사인 이티에듀 홈페이지(etedu.co.kr)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개인용 컴퓨터와 웹캠 등이 필요하다.

수강료는 광주 거주 시민이면 누구나 무료이다. 교육 과정은 초·중등(10월17~18일) 고등·대학생(10월24~25일), 성인(10월31일~11월1일), 시니어(11월

7~8일) 과정으로 나뉘어 진행된다.

이번 교육은 일상 속 인공지능(AI) 활용 사례와 기계학습과 신경망의 원리 등 인공지능의 활용법과 원리 등이 연령대별 맞춤형으로 구성됐다.

자세한 내용은 이티에듀(02-2168-9239) 또는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인공지능산업팀(062-610-2454)으로 문의하면 된다.

탁용석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은 "이번 시민아카데미가 인공지능에 대한 광주시민들의 이해를 넓히고 인공지능 중심도시 광주를 위한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백희준 기자 bhj@

귀할수록 전문 브랜드 비타민하우스

**45** 북위 45도 이상  
흑한에서

**15** 15년을 자란  
차가버섯을 엄선

**12** 12배 고농축으로  
영양을 꽉 채운

**시베리안  
차가버섯**

Vitamin House  
구입문의 1588-8529

비타민하우스 전속모델 서경석